



##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사람

청원산방은 바람도 햇살도 머물다 가고 싶은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청원산방의 대문을 들어서면 '계수나무가 있는 달처럼 아름답다'라는 뜻을 지닌 계수현(桂樹軒) 현판과 함께 다양한 장호문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장호문을 열고 들어서면 실내 가득 춘양목이 지닌 은은한 솔향이 코끝에 와 닿는다. 이렇게 해서 청원산방에 들어서면 바깥 경계는 잊어버리게 된다.

청원산방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으로 전통장호에 대한 것을 담은 작은 박물관이다. 청원산방 주인 심용식 선생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6호 소목장으로 소목 중에서도 장호문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이러하지만 장자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보다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장호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노력했을 뿐이다"고 한다.

청원산방은 심용식 소목장이 사십여 년동안 전통장호를 제작하고 연구하며 쌓아 온 결과물을 한자리에 집약시켜 놓은 공간이기에 외국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장호문제작을 시연하고 있기에 우리 것을 배우려는 이들에게 귀중한 공간이다. 평생을 한옥으로 살아 온 그는 이렇게 세상으로 회향한 것이다.

충남 예산이 고향인 그는 어릴 때부터 수덕사를 드나들었는데, 그때 전통문살과 단청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것이 열일곱 살에 목수의 길을 걷게 된 명분이란다. 조찬형 선생으로부터 십년 동안 전통장호 제작법을 전수 받았

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툼밥에 파묻혀 6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십여 년 동안 배고픔과 온갖 고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배워 만든 첫 작품을 우연인지 필연인지 수덕사에 걸게 되었다. 그 후로도 끊임없이 목공예기술을 연마했으며, 최영환 선생과 신영훈 선생을 만나 장인의 자세와 예술가가 갖추어야 할 안목을 배웠다. 그리고 좋은 나무를 찾아서 전국 산야에 발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청원산방 한 칸에 마련된 그의 작업실에 들어서면 300가지도 넘는 공구들이 걸려있다. 40년 세월동안 그의 손때가 묻은 공구들이다. 크고 작은 톱, 대패, 먹줄, 끌 등 처음 보는 공구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을 보기만 해도 그의 치열한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심용식 선생은 오랜 세월 나무를 만지면서 축적한 감각을 손이 기억하고 있다고 믿기에 기계보다는 수작업을 고집한다. 그래서 그가 만든 문은 아름답고도 튼튼하다.

"집이 사람이라면 장호는 얼굴입니다. 장호를 얼마나 섬세하고 예쁘게 짜느냐에 따라 집의 돋보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 하나를 만드는 데는 집 짓기, 바림의 세기, 빛의 양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인 심용식 선생을 두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사람'이라 칭한다. 특히 그가 제작한 문을 달아 본 손님들은 "장중한 맛을 풍기는 장과 의젓함을 발산하는 문이 건물과 잘 어울려 법당의 위엄을 드러내면서도 드러내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불다 새로 지은 낙산사 원통보전의 장호부터 송광사, 보탑사 3층 목탑, 해인사 비로전, 장경궁 인정전과 문정전, 영국 대영박물관의 사랑방 등 수많은 사찰을 비롯하여 중요한 전통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보수할 때면 오래 선생의 장호가 들어갔다.

군복무를 마치고 사우디에 가서 몇 년 동안 일하고 왔더니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더라. 그때 인왕산 가까이 작업실을 열었는데, 부근 어느 사찰에서 공사를 하더라. 짜다가 문짝이 있기에 아무도 몰래 들고 와서는 화려한 꽃문양을 조각하여 아무도 몰래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보시한 덕분인지 그 후 사찰의 공사가 많이 맡게 되었다.

불국사, 송광사를 비롯하여 큰 사찰공사를 맡아 할 때면 절에서 몇 년이고 숙식을 했다. 그래서 사찰의 공간이 익숙하다 못해 고향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에 대한 예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은 아름답고도 튼튼한 문을 부쳐낸 전에 올리는 것이라 생각하여 일명으로 만들었다. 말미 끝에 열반하신 정일 큰스님과 월산 큰스님이 그렇다고 했다.

청원산방은 장호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는 공간인 만큼 온갖 다양한 장호들이 제일가는 볼거리다. 화려한 꽃문양으로 살대를 장

"눈곱재기장, 머름장, 팔각장, 접이세살문, 기갑살문, 불발기문 등 수백 가지 장호문양을 다 만들어봤습니다. 때론 전통에도 없는 문양을 창작해 보기도 합니다. 수백 년 후 후손들에게 다른 전통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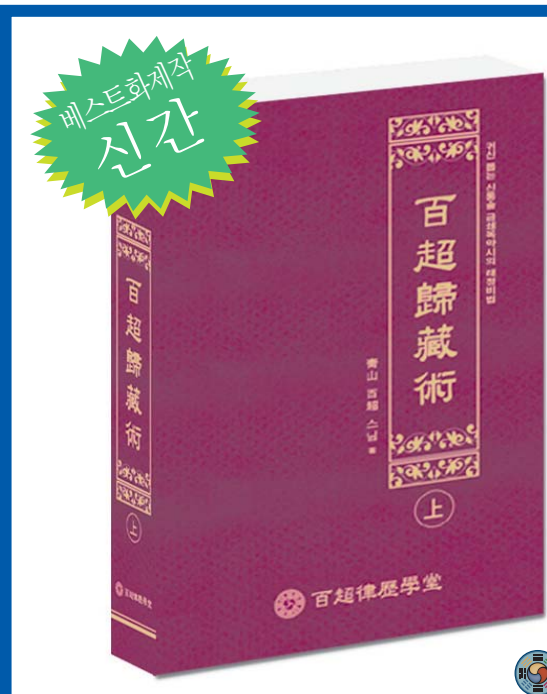
고유한 정신과 기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현대적 재구성에만 힘을 쏟는 것도 올바른 전통을 계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심용식 선생은 전통장호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닌 사람과 더불어 숨 쉬는 현대의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생은 그의 산방을 두고 '오래된 나무는 그 세월만큼의 햇빛과 비바람을 견뎌야합니다. 새들이 날아왔다 떠나가고 수만 개의 일이 나고 지는 동안에도 나무는 그렇게 서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집으로 다시 태어날 꿈을 꾸는 집'이라 한다. 그리고 자신은 "나무의 꿈을 이뤄주는 사람"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어릴때 수덕사 드나들며 문살·단청에 '매료' 문양 창작, 후손들에 다른 전통 남겨주고파

식한 문을 꽃살문이라 하는데, 정자매화꽃살문과 소솔빛꽃살문 앞에 서면 만개한 꽃 앞에 선 것처럼 아름답다. 이름도 재미있는 '눈곱재기장'이 있는데, 겨울철 바를 살릴 경우 큰문이나 창을 열면 불편할 뿐 아니라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람 얼굴 정도크기의 창을 내어 효율성을 높인 문이다. 주방에는 만월(滿月)을 연상하게 하는 달아자살문을 달아놓았다. 청원산방에는 몸집이 큰 외국인을 위하여 반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심용식 선생의 은고이지신(隱故而知新)정신을 엿볼 수 있다.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 귀신뱐는 래정비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똑똑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 백초스님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